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1
06

포커스

한우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순회 간담회

현장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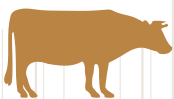
살처분 보상금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 광역시·도별 백신접종 변경시기 안내



C.O.N.T.E.N.T.S

포커스	02-05
한우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순회 간담회	
한우 산지가격연동제	05
축산관측	06-07
6~7월 한우 지육 도매가격, 1만2000원대 이하 전망	
현장르포	08-09
살처분 보상금 무엇이 문제인가?	
파워인터뷰	10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알려드립니다	11
전국 광역시·도별 백신접종 변경시기 안내	
Information	12-14
한우자조금 이렇게 씁니다	
애독자 코너 & 인증점 소개	15



근본적인 한우가격

안정방안 시행돼야

최근 한우가격 폭락은 공급과잉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폭락하는 한우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실행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구제역 백신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한우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유통단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작금의 한우가격 폭락사태를 급반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우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한우가격 안정방안이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포커스 | 한우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순회 간담회



한우가격 안정 위한 현실적 방안 절실하다

전국 순회 한우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 간담회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한우가격의 급락 상황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 '한우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한경대학교 축산기술지원센터(경기·강원·충남북지역)를 시작으로 9일은 담양축협 백동지소(전남·북), 10일은 대구농업인화관(경남·북)에서 진행했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이 자리를 통해 최근 한우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고, FTA대응 관련 정책대안과 소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역별 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암소도태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적극적 개입 절실 마리당 최소 20~30만원 도태장려금 지급돼야 농가 동참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지난 3일 한경대학교 축산기술지원센터(경기·강원·충남북지역)를 시작으로 한우가격의 급락 상황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 '한우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최근 한우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고, 소값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역별 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암소 자율도태사업 시 구체적 실천방법과 현실적 소비방안 마련돼야

사육마릿수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육두수 조정을 위해 암소도태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영도 충북 괴산 한우자조금대의원은 “현재 3~4산 이후 비육한 암소를 내다팔면 사료비도 건질 수 없는 180만원 미만으로 형성되어 송아지를 내는 편이 훨씬 좋은데 누가 암소를 자발적으로 도태하겠는가? 마리당 최소 20~30만원의 도태장려금이 지급돼야 농가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치형 한우협회 충남 천안시지부장은 “농가가 암소를 자율도태하더라도 소비가 되지 않아 재고로 쌓인다면 도태의 의미가 없으므로 소비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농가 유지위한 자금지원 절실하다

한우가격이 급락하며 한우농가의 경제적 압박이 심해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조용 한우협회 경북 김천지부장은 “한우 전망에 따르면 한우가격이 다시 상승하려면 2~3년이 지나야하지만 한우농가가 그동안 견뎌낼 자산여력이 없다.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이자보전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홍제 한우협회 경남 하동지부장은 “6월 사료값이 인상된 채 사료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했지만 한우가격이 하락해 상환할 방법이 없다. 가격 회복 시까지 보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창근 경북 안동 한우자조금 대의원은 “구제역 매몰처분당시 100% 보상을 약속했으나 보상시기가 도래하자 기존 약속과 다른 기준을 내세워 보상하려고 한다. 정부는 보상금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커스 | 한우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순회 간담회

적정 한우가격 형성 2~3년 걸릴 듯...사료 이자보전 자금지원 필요

음성공판장, 근출혈 발생률 높아 출하기피... 예약제 도입해야

적정 사육마릿수 250만마리까지 조정하도록 농가 힘 모으자



06. 09
전남북간담회



06. 10
경남북간담회

소비처 마련 및 한우전문점 개선 필요

급증하는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의 방안으로 학교·단체·군급식 등 인위적인 소비촉진 방안이 시급하다고 논의했다.

조동권 전북 정읍 한우자조금 대의원은 “소비를 확대해 한 마리라도 더 소비하는 것이 소값을 다소나마 안정시킬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 주요 공공기관을 비롯해 군·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한우고기 소비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영기 경기 김포 한우자조금 대의원은 “현재 정육점형 식당에 물리는 부가가치세로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수입쇠고기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우를 사용하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억수 한우협회 경북 상주시부장은 “협회가 적극적으로 한우 소비촉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생산자 시범 매장을 내고, 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지역 한우가격 안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공판장의 가격제시 기능 미비, 차상계류 심각

전국 소값의 가격을 제시하는 음성공판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기순 충북 청원 한우자조금 대의원은 “음성공판장은 타 도축장에 비해 근출혈 발생율이 높고 부산물 문제로 출하를 기피해 가격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차상계류 중 소가 죽으면 100%농

가책임으로 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남배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음성공판장은 3박이상 차상계류를 하는데 물 한방울 주지 못하는 여름철에는 동물학대 수준이다. 하루빨리 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가격 하락 방지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남호경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업계에 투입된 공적자금 이 3조원을 육박해 정부의 도태장려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국회 및 대정부 농정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00만마리에 이르는 사육마릿수를 적정 규모인 250만마리까지 조정하도록 한우농가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조병임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은 “한우값 하락세가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대비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암소 도태도 결국 농가가 실천해야 하는 만큼 스스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기를 논의하며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값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㉞

이슈 한우산지가격 연동제

소비자들 가격하락 체감하도록 산지가격연동제 적극 요청



소 값 안정화 대책으로 한우 산지가격에 따라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는 소 값 안정대책 TF팀을 구성, 지난 달 27일,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소 값 안정화를 위한 현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소비자들이 한우고기 가격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지가격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우고기 산지가격연동제는 산지 한우가격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산지가격이 떨어졌을때 소비자가격도 같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소비활성화, 수요확대로 이어져 소 값을 안정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선 시·도 단위로 요식업 중앙회 등 관련단체를 직접 방문해 식육판매점 및 대중음식점의 가격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와 동시에 농협중앙회는 전국 1550개 농협 판매장을 한우고기 소비 확대의 주요 통로로 활용, 마진을 최소화한 염가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100마리이상 대규모 농가 대상

한우암소 10만마리 자율도태사업 본격 추진

또한 농식품부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생산단계에서 내년 3월까지 100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암소 10만마리 자율도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자율도태 실시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등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는 소 값 안정 대책 TF회의를 주 2회 이상 개최해 각 시·도 및 기관별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관측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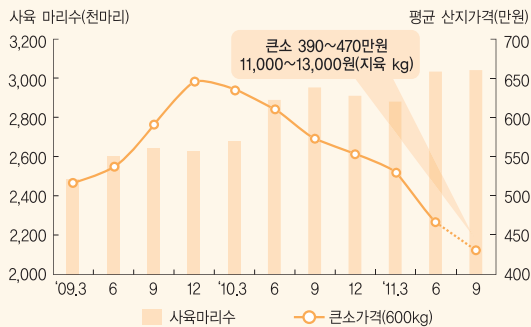
KREI

축 산 관 측

6~7월 한우 지육 도매가격, 1만2000원대 이하 전망

- * 송아지 생산이 증가해 6월과 9월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세 지속
 - 구제역에 따른 매몰처분(11만4000마리)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전년보다 6.5% 증가한 288만마리
 - 6월과 9월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전년보다 각각 4.3%, 3.1% 증가한 303만마리, 304만마리 전망

◆ 한우사육마릿수 및 가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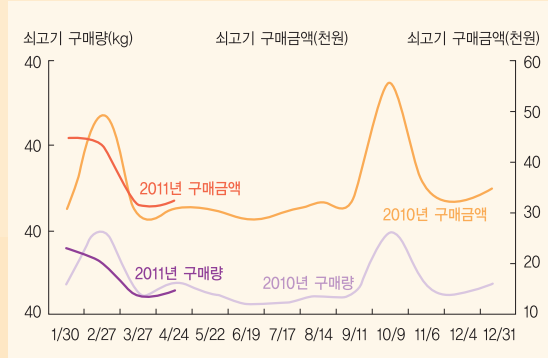
- * 한·육우 도축과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6~8월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증가
 - 출하지연 물량 많아 6~8월 도축마릿수는 전년(15만8000마리)보다 2.7% 증가한 19만 2000마리로 전망
 - 3월 이후 수입된 물량이 재고로 남아 6~8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7만9000톤)보다 2.0% 증가하는데 그친 8만 톤으로 예상

- * 소비의향 감소와 공급량 증가로 한우가격은 전년보다 약세 지속 예상
 - 도축마릿수 및 수입량 증가와 소비의향이 감소해 6~7월 지육 도매가격은 1만 2000원대(430만원, 1등급 생체 600kg 기준) 이하로 하락 예상
 - 송아지 가격 전년(245만원)보다 크게 하락한 170~190만원으로 전망)

쇠고기 소비의향 감소, 가격 하락세 전망

- * 가정내 쇠고기 소비량, 소비의향 감소
 - 1월 3일~4월 24일까지 가정내 4주 평균 쇠고기 구매량은 1.48kg으로 전년 동기(1.50kg)보다 1.2% 감소
 -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4월 24일 가정내 쇠고기 구매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7.2% 감소한 1.29kg
 - 소비자 조사결과(5월 16~17일), 5월 대비 6~8월 한우고기 소비의향은 10.0%, 수입쇠고기는 8.1% 줄이겠다고 응답.

◆ 가구당 4주 평균 쇠고기 구매량 변동





한우가격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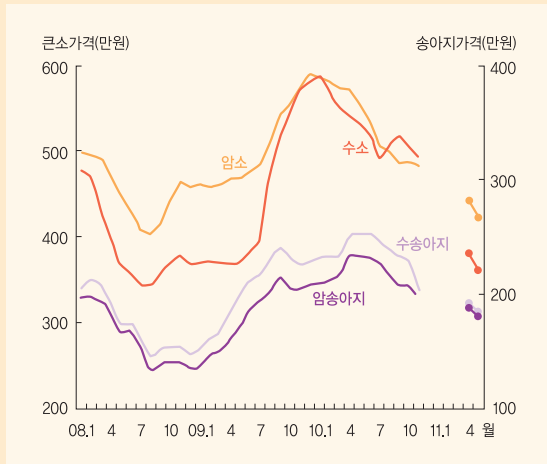
* 한우 산지가격 하락

- 5월 수소 산지가격은 360만원으로 전년보다 32.2%, 평년보다 10.2% 하락했으며 암소 가격 역시 422만원으로 전년보다 23.8%, 평년보다 12.9% 하락했다.
- 가축시장 개장 후 수소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송아지 가격은 개장초기 수요증가로 일시적으로 높게 형성되다 최근 약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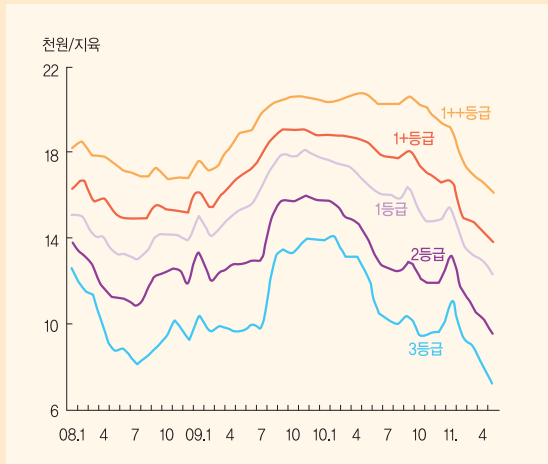
• 6~7월 1등급 가격 1만2000원대 이하 전망

- 도축마릿수와 수입량 증가로 6~7월 1등급 도매가격은 1만2000원대/지육kg(큰 소 산지가격은 430만원, 생체 600kg 기준)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아지 가격은 170만원~190만원으로 전망된다.
- 금년 추석이 빨라 8월에는 추석수요증가로 6~7월보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한우 산지가격 동향



◆ 한우 등급별 도매시장 경락가격 동향



* 6~7월 1등급 도매가격 전년보다 25~31% 하락 전망

- 등급별 경락가격도 하락세 지속
- 5월(1~23일) 1++등급 경락가격은 지육 kg당 1만6125원으로 전년보다 22.2%, 1+등급은 1만3930원으로 24.6% 하락했다. 1등급(1만2320원), 2등급(9525원), 3등급(7197원)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폭(25~42%)이 컸다.
- 구제역 발생기간 동안 등급이 낮을 수록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 한우 가격전망

한우		6~8월	
		2010년	2011년
큰 소(1등급)	산지(600kg)	573만원	390~470만원
	도매(지육kg)	16,008원	11,000~13,000원
수송아지		245만원	170~190만원

※ 큰 소 산지가격은 1등급 경락가격(원/지육kg)에 지육율(59.7%)을 고려하여 생체 600kg으로 환산함.

※ 자료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현장분포 11월차분 보상 무엇이 문제인가?

“보상금 산정체계 변하지 않으면 어떤 농가도 정부시책 따르지 않을 것”



▲ 홍재경 전국한우협회 양주지부장.

현실성 있는 보상체계 마련 촉구

“23년을 개량에 쏟아붓고 이제야 결실을 맺겠구나 했는데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부시책으로 가족보다 더 아꼈던 소들을 묻은 것도 기증 아꼈는데 살처분 보상금 산정하는 것을 보니 울화가 치밀어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재입식을 위한 청소가 한창인 경기도의 한 농가를 방문해 살처분 이야기로 운을 떼자, 아직 귀표를 부착하지도 않은 송아지를 매몰하던 순간이 떠올라 농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홍재경 전국한우협회 양주 지부장은 “보상금 산정체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구제역 살처분과 피해보상, 무엇이 문제일까?

경기도 일대 농가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보상금보상금액과 지급 시기, 미리 알려줘야

현재 대다수의 살처분 농가에서는 재입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보상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재입식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6월 16일에 보상금을 시·군에서 산정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 농가의 수령 금액과 시기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가들이 앞으로 몇 마리의 소를 입식해야 할 지, 언제 입식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의 한 농장주는 “앞으로도 계속 소를 키우며 살고 싶은데 당장 내일도 알 수가 없어 뭘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보상금 지급 매뉴얼을 확정짓고 농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장주는 “농·축협 같은 전문적인 대표기관이 앞장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확한 보상금 정보없어 재입식 준비 어려워

개량농가, 고등등록우 보상수준 '턱없이 낮아'

농축협·정부·지자체와 보상협의 진행 필요



▲ 농가 대청소 모습.

와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가의 채무부담 완화책 마련이 필요

대부분의 농가가 농·축협으로부터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농가 부채로 인한 부담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우의 경우 임신에서 출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40개월 정도로 긴 생산주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한우농가가 가진 부채를 2~3년 만이라도 무이자로 전환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한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생계자금에 추가지원이 되지 않더

라도 소의 입식과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지부장은 "지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다면 생활이 가능하지만 살처분으로 기초 생활마저 곤란한 사람이 많다"며 "생계는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다시 소를 입식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소의 입식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정부차원에서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농가 채무 부담의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실성 있는 보상금 지급 필수

농가가 재기할 수 있을만한 현실성 있는 보상금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현재 이뤄지는 보상금 기준이 농장을 계속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낮게 책정된데다 인공수정한 암소나 임신우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농가의 재입식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임신우 문제의 경우 임신여부 판단이 수태중인 송아지가 형체를 갖춘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살처분이 이뤄질 당시 임신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수정단계나 임신 초기인 암소들의 경우 보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부장은 "많은 농가에서는 인공수정 후 기록을 남기는



▲ 홍 지부장은 이번 구제역으로 정부에 대한 농가들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데, 현재 보상금에 대한 논의에서 수정단계의 암소나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임신우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량농가의 경우 고등등록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미미한 수준인 만큼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 농가는 "살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지급되는 보상금으로는 예전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소유한 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 지부장은 "젖소의 경우 바코드 9자리를 입력하면 산유량, 체세포, 세균수까지 나오는데 한우는 그러한 개체별 등록이 없다"며 "개량농가들의 피해보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등록우만이라도 이력제상에 세부적인 개량성적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성 없는 보상, 정부 신뢰도 뚝 ↓

"정부에서 구제역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었고 초동 대응조차 느려 농가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여기에 살처분 보상금 산정마저 현실성 없이 이뤄진다면 농가는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도, 정부시책을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홍 지부장은 살처분 보상이 단순히 보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말 구제역 발생이후 농가들은 명절에 가족을 보는 것도 포기하며 정부 방침에 따랐지만 결국 농가에 돌아온 것은 피해와 손실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홍 지부장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농가만 피해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게 돼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현실성 있는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파워인터뷰 |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소비자조사 결과, 한우 소비의향 10% 감소 품질·정확한 홍보만이 '신뢰회복' 무기

어릴 때 선호한 맛은 성인까지 이어져

학교급식 등 한우 접할 기회 확대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5월 중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한우 소비 의향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일까. 대형마트의 한우고기 판매대마다 대대적인 세일을 실시한다는 안내판이 붙었다. 그래도 한우고기 판매는 눈에 띄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한우소비 감소, 이를 해결할 뾰족할 방법은 없을까.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구제역 보도로 불신감 ↑

“구제역보도 타격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소 매몰하는 화면이 나오니, 소비자가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감이 추락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한우가 받은 거죠.”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5월 실시한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가 매스컴의 매몰장면을 보고 쇠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는 이번 구제역으로 330만여 마리가 살처분 당했고, 소는 16만 마리정도가 살처분을 당했죠. 실상 돼지에서 구제역 피해가 컸지만 매스컴에 소 매몰처분 장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 구제역 하면 소로 직결해 소비자가 인식합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광모 회장은 한우산업이 구제역으로 인한 오명을 씻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의 가축질병은 안돼요. 좀 더 깨끗하고 자연스런 환경에서 사육을 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신뢰입니다.”

소비자들이 한우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해야

“한우는 참 맛있죠. 가격은 비싸지만 비싼 돈을 주고 먹을 만큼 참 맛있는 고기입니다. 고소한 감칠맛이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죠. 문제는 이 맛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 회장은 한우고기를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그 선호도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릴 때 선호하는 입맛은 성인이 되어도 이어집니다. 국가 예산이 여의치 않지만 제도적으로 학교급식에 한우고기량을 늘려 아이들이 자주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한우의 맛을 즐기고 자 계속 한우를 소비할 것입니다.”



전국 광역시·도별 백신접종 변경시기 안내



TIP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계획 조정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계획을 일부 조정했다.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적용 시 향후 일제접종 시기가 7~8월 혹서기나 1~2월 혹한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접종 스트레스로 유·사산 증가 등의 사유로 농가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우의 예방접종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5~6개월로 조정해 사실상 농가 판단하에 1개월 먼저 접종 가능하도록 했다. 백신 공급 신청, 백신 접종 및 관리요령 등은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 백신 접종시기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 백신 공급 요령

시·군 : 매월 15일, 다음달 소요물량을 시·도에 신청
 (소의 경우 이력시스템을 활용함)
 시·도 : 매월 20일, 다음달 소요물량을 검역원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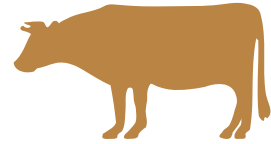
▶▶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 의무

휴대대상 : 농가 거래 및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예방접종확인서는 백신을 실시한 농가가 직접 발급)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한우 더욱 저렴하게 소비자 곁으로~

대형업체 연계 파격적 할인행사 '인기'



한우자조금과 대형유통업체가 연계한 한우할인행사가 지난 5월에 이어 6월동안에도 꾸준히 진행하며 소비자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했다.

우선 6월 연휴기간(4~6일)를 맞아 선보인 이마트의 '삼겹살보다 싼 한우'가 불티나게 팔렸다. 이마트는 "연휴가 시작되는 4일 하루동안 전국 매장에서 1등급 한우 등심이 47톤, 한우 국거리·불고기가 103톤이 소비됐다"면서 "한우 등심은 평소 주말 판매량 1.5톤에 비해 30배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고 국거리·불고기 역시 평소보다 15배 이상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4일 하루동안 1등급 한우 등심을 정상가보다 30%가량 싼 3,220원/100g에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가격은 백화점에서 파는 일반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브랜드 삼겹살 가격보다 최대 200원/100g가량 낮은 수준이다.

또한 축산기업중앙회와 함께 전국 정육점에서는 6월부터 7월까지 '한우희망 노란우체통' 경품행사를 펼친다. 축산기업중앙회 회원인 1만5000업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한우고기 일정금액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펼쳐 다양한 한우경품과 한우고기를 증정한다.

한우전문음식점 또한 소셜커머스인 티켓몬스터를 통해 최대 50%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지난 5월 19일부터 진행한 이번 할인행사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 중이며 누리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우자조금은 "구제역으로 인해 출하대기물량이 많아 8월까지 집중적으로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우가격이 지금은 떨어졌으나 할인행사와 같은 단기적 프로모션을 통해 추석때까지 평년 가격을 회복하도록 총력을 다하며 장기적으로는 암소 자육도태 사업을 진행해 사육두수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자조금 소비촉진행사 '효과 톡톡'

한우 1만5000마리 추가 소비 유발

한우자조금은 지난 5월부터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1만5000마리의 추가 소비를 유발시키는 등 큰 효과를 거뒀다.

남호경 위원장은 "구제역으로 인해 지난 설 대목에 한우소비가 부진해 도축대기물량이 증가, 소값 안정화를 위해 한우소비촉진행사를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대형 유통업체와 한우전문점, 한우 정육점 등을 통해 40% 이상 할인행사를 진행했으며 전년동기 판매실적 대비 1마리

신장시킬 경우 30만원 상당의 현물이나 행사비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 한우 도축마릿수는 전년동기 대비 4월 7,600여 마리, 5월 8,000여마리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전문점도 티켓몬스터와 연계해 4억4,0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으며 도단위 할인행사를 통해 경북의 경우 560여두, 매출액 30억원 이상을 판매했다.

한우자조금은 향후에도 TV와 미디어, 이벤트 등 모든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서 소값 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다.



직장인이여! 한우로 푹푹 뭉치자!!

한우114 '직장인 사기증진 프로젝트' 이벤트 실시

한우114에서는 직장동료와 함께 한우를 알리는 '직장인 사기증진 프로젝트' 이벤트를 지난 21일까지 진행했다.

회사 워크샵 및 모임 등이 잦은 6월을 맞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친근감과 선호도를 강화하고자 마련한 이번 이벤트는 직장동료와 함께 한우 알리기에 동참한 팀을 대상으로 푸짐한 한우세트를 증정했다.

이번 이벤트는 한우 114 트위터,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명 등에 한우 사용하기, 한우같은 직원 찾기, 한우맛집 어플 다운받기, 색다른 한우 홍보하기 등 다양한 한우 알리기 미션을 지정해 수행한 팀 중 미션을 가장 많이 수행한 '최다 게시팀' 1팀에게 10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증정하고 톱톡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팀 중 2팀을 선정해 5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세트를 증정했다. 또한 20팀을 추천해 한우 불고기 콤보 10세트와 미션 수행과 상관없이 추천을 통해 1등 1팀에게 5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세트와 2등 20팀에게 한우불고기콤보 10세트를 증정했다.

KBS1 6시내고향 | 05.20



20주년 특별생방송으로 진행한 이날 방송 중 '1분광고'라는 코너에서 안동 한우를 소개하며 한우소비를 당부했다.

KBS2 퀴즈쇼 사총사 | 05.22



퀴즈를 맞힌 출연진에게 한우세트를 선물해 한우소비촉진을 유도했다.

KBS2 리빙쇼 당신의 6시 | 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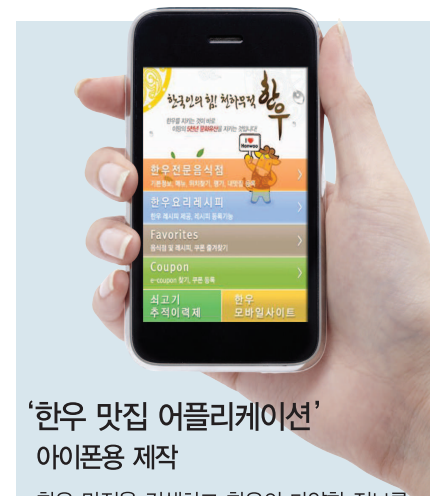
중국인들이 즐겨먹는 여름철 보양식인 '산라탕'이란 음식을 한우를 사용해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했다.

SBS 진짜 한국의 맛 | 06.01



충남 홍성의 한우를 소개하고자 농가를 방문해 구제역과 사료비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전하고 수입육과 비교해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한우소비촉진을 당부했다.

PPL



'한우 맛집 어플리케이션' 아이폰용 제작

한우 맛집을 검색하고 한우의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한우 맛집 어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용에 이어 아이폰용까지 제작됐다. 한우맛집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용은 올해 초 제작되어 5만건이 넘는 유저가 다운로드해 큰 인기를 얻은 반면 아이폰 유저는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이 제작되어 이제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한우 맛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한우맛집 어플리케이션은 전국의 한우 맛집 소개 및 주변 음식점 검색이 가능하며 한우 요리 레시피 및 최고기이력정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청소년
맛체험

&

시군
홍보행사



청소년
맛체험



05. 13 대구 비봉초



05. 18 강원 강릉여중



05. 18 전남 광주 살레시오중·고



05. 19 충남 당진 원당중



05. 23 경남 김해 대청고



06. 3 서울 화원중

시군
홍보행사



05. 27~29 성주 생명문화축제



05. 28~29 단양 철쭉제



06. 06~07 경산 자인단오제

한우소식 이모저모

공판장 순회하며 소값 안정화 협조 호소



남호경 위원장을 비롯한 한우협회 회장단은 전국 축산물공판장을 순회방문하면서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설득에 나섰다. 지난 5월17일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을 시작으로 고령 및 부천, 나주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남 위원장은 “공판장을 방문하고 중도매인이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 한우 가격 안정화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농가들의 현실을 알고 그들의 공감을 얻는 것 만으로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식육 구분방법 개정 안내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0-136호, 2010.12.29)” 중 등급표시방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아래 표와 같이 개정·시행됩니다.

식 육 판 매 표 지 판	
원산지 식육의 종류	국내산(한우고기)
부 위 명 칭	안 심
등 급	1++ 1+ 1 2 3 등외
도 축 장 명	농협음성
개체식별번호	002 0031 1248 2
100g당 가격	8,500 원

구분	중전	개정
등급표시방법 변경 (식육판매표지판의 등급란)	- 해당 식육의 등급 기재	- 해당 식육의 등급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O” 표시
명칭변경	- 축산물등급판정사	- 축산물품질평가사
	- 쇠고기 등급 중 “등외(D 등급)”	- 한글로 “등외”로만 표시
	- 선하증권번호	- 수입유통식별번호

애독자 코너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계획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일제 접종 시기가 혹서기인 8월과 혹한기인 2월에 해당되어 유·사산의 우려가 큰 관계로 현행 6개월 주기의 접종프로그램을 5~6개월로 조정, 농가 스스로 1개월 먼저 접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송아지는 1차접종을 2개월령에 한 후 2차 접종을 몇주 후에 해야할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1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게재하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보내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5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박소라(강원 홍천군), 이관범(충남 부여군), 오성희(경북 상주시), 이순화(제주 제주시), 남기정(충북 충주시), 김영분(충남 태안군)

인증점 소개

한우소금구이 덩

전화 : 02-403-1258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89-26호
메뉴 : 설화등심(130g) 38,000원, 석쇠불고기(150g) 16,000원



국가대표토종한우'라는 상호로 유명세를 얻고 장사를 하다가 새 단장한 '한우소금구이 덩'. 1+이상의 한우만 취급하며 고기 이외에도 푸짐한 밀반찬과 다양한 종류의 쌈이 같이 나온다. 특히 상상한 육회와 생간은 손님들이 가장 환호하는 밀반찬이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8권 제18호 통권 제68호 발행일 2011년 6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케이아화관 3층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디자인 HNCOM Tel : 02-585-009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농가, 농축협, 유통업체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소비촉진” 행사로
한우가격 안정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유통업체 **30% 이상**
매출 신장

5월

5월 “농축협, 유통업체 대규모 할인행사 완료”

전국 농협 대형 하나로 클럽
“45% 할인” 행사

45%

음식점 및 판매점 관련 소비촉진
 티켓몬스터와 연계한 **40% 이상 할인** 판매

40%

대형 유통업체
“40% 이상 할인” 행사

30%

- AK백화점 · 현대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 GS리테일 · 롯데슈퍼
- 홈플러스 · G마켓 · 옥션

도단위 특별 소비홍보행사
 지역 농축협, 영농조합판매장
“30% 이상 할인” 행사

30%

6월

6월에도 소비자 가격인하를 위한 대폭 할인행사 진행

- 소값 안정을 위한 T/F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가동
 다각적 소비촉진과 사육두수 감축을 통한 소값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매주 금요일 **한우 먹는날** 참여유도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 **암소 특별 할인** 행사 추진
- 6월4일 **이마트** 전국 137개점 **한우 전품목 할인** 판매
- **정육점 할인/경품 행사** 예정 축산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할인/경품 행사** 예정